

대림제 4주일

제1독서 : 2사부7,1-5.8b-12.14a.16

제2독서 : 토마16,25-27

복 음 : 루가1,26-38

순정이

“이름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38).

강론

“기다림”

김진철 신부 / 창인동 천주교회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성당은 다시 맞이하게 되는 성탄을 기다리며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로 인해 활기차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가? 그렇지만 보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전과 별로 다를게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갈구하지 않는다면 구세주께서 오신다해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참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세주는 오시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성탄을 눈 앞에 둔 오늘 복음은 한 여인과 천사의 대화를 통해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그때 마리아는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가? 첫째, 마리아는 꿈꿈이 묵상하였다고 전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느님의 뜻이라면 현실적인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받아들일겠다는 결단의 자세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도 정작 시간이 나면 놀이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에게 묵상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또 이기심에 빠져있다면 이웃 사랑의 결단이나 자선은 우습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과 이웃 사랑의 열정이 없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때 알아뵈고 맞아들일 수 있을까?

은혜로운 대림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합당한지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리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놓은 담을 헐고 하느님과 이웃을 받아들일겠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새롭게 살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잘못 살아온 나를 참회하는 고해성사부터 정성껏 보아야 하겠다. 설레임과 기대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성탄이 오시는 그분을 향한 열정임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시도록 마음 안에 구유를 만들자.

소리

“한해를 보낸다는 것”

연말에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만나 덕담을 나누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것을 가르켜 ‘망년회’ 또는 ‘송년회’라고 한다.

어느 것이든 한해를 보내는 의미지만 ‘망년회’는 불행과 시름, 설움의 묵은 해를 잊자는 의미이고 한해를 잘 지낸 사람들의 아쉬움이 담긴 잔치가 ‘송년회’라고 한다면 잘못된 표현일런지.

따라서 ‘망년회’는 뒷골목 비좁은 대포집에서 소줏잔을 기울이며 설움을 토해내야 제맛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돈이 흔해진 탓인지, 사치와 향락풍토 때문인지 호텔이나 호화 연회장에서 한판 벌여야 제격인 것으로 아는 ‘망년회’ 이름을 빈 ‘송년회’로 연말이 시끌벅적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호텔과 연회장들이 연말까지 예약이 만원이라는 보도다. 스키장과 온천장 등 일부 관광지들도 마찬가지로 성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쌀이 상륙을 기다리고 있고 점진적이긴 하지만 금융·증권·보험·건설·교통·통신·관광·영화·광고 등 서비스시장 전반야가 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돗물 먹고 컸다고 큰소리 치는 도회지 사람들도 한두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농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난다.

이번 연말은 호텔이나 호화 연회장에서 한판 벌이기엔 아픔이 크다.

누구도 원망할 것 없이 전국민이 한데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다. **문**

순정이 산책



“성탄을 앞두고”

12월,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한번쯤 겸허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1년을 반성해본다.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신성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런 중에서도 12월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성탄,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이 되면 전세계의 메스콤은 성탄미사와 문화 행사를 중계하고 정치가들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과 친지들 또한 한자리에 모여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기도한다.

이제 1주일 후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성탄이다.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성탄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 성탄의 기원과 의미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성탄이라 한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날을 성탄축일이라 하며 일년 중 중요한 축일 가운데 하나이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영국의 관습에서 그리스도 탄생의 영광을 기념하던 미사를 지내던 날에서 유래하였다.

성탄, 흔히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이 말은 ‘Christes Masse’라는 말에서 생겨난 중세기의 영어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다. 불어로는 ‘노엘(Noël)’,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는 ‘거룩한 밤(Weihnacht)’이라 불린다. X-mas에서 X는 희랍어의 키(X)자인데 그리스도는 고유명사의 첫글자가 X이므로 후에 그리스도교에서는 X를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약자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로 생일보다는 죽은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초세기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의 생일만은 특별히 경축했는데 그 이유와 시작된 시기는 확실치 않다. 구세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사상은 기원 후 3-4세기에 교회 안에 예수의 신성(神性)을 부정하려는 이단이 생겼을 때 이 이단에 대항하여 하느님의 아들은 실제로 인성(人性)을 취하심과 동시에 신성도 함께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함으로써 신앙을 굳히고자 한 데서 기원한다.

성탄축제를 12월25일에 지내게 된 것은 274년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시리아의 태양신 숭배일인 12월



25일을 로마제국에 받아들여 국가 공휴일로 정한 데서 비롯된다. 당시 로마는 12월25일을 ‘꺼지지 않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경축했고 이를 336년 그리스도교에서는 ‘참 태양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적이며 그리스도화한 의미로 12월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냈다. 그러다가 354년 로마의 유스티노 황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설을 없애고, 예수의 탄생일을 12월25일로 규정 선포했고, 교황 리베리우스도 성탄미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예수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즉 예수 성탄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죽음의 멸망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 일생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평화를 선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어두움의 역사에서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둠이 걷히고 불의가 종식되며 하느님의 뜻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화해와 사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이다.

성탄에 얽힌 풍습이나 날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도 지적했듯 성탄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다는 데 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준비하자. 그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

자동차의 모든것
월드카 인테리어

이 총 석(살레시오)
김 미 자(실 비 아)

우아동 신역로타리 해금장 옆
☎ 72-5173, 73-0534

운 장 회 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 광 석(야고보)
전 민 자(올리아)

중앙 성당 ← → 한양,목원예식장
☎ 254-753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 향 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축! 확장 이전
한성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감리, 건축상담
한 성 수(디오니시오)

전북은행 농송지점 뒤 세전빌딩 401호
☎ 87-9585~6 FAX 83-9166

5분교리 40

“하느님의 심판(사심판)”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지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잠깐 동안의 신앙의 순례가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로를 쌓을 수도 없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살아온 삶의 형태가 결정된 채로 하느님 앞에 마주서게 된다. 나 홀로 하느님과 대면하여 셈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사심판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재판 절차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무한, 영원하신 하느님에게서 시작된 우리 '생명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께 맞았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은 그대로 흡수되고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은 배척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인격자이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사심판의 순간에도 역시 같은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공정한 점수를 매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상벌에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명심판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성녀 대 데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될 천국과 지옥은 하느님이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라고?'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궁이 같 것이다. 천국과 지옥행은 '십자가를 좋아했느냐, 싫어했느냐'는 아주 단순한 표시로 결정이 난다는 것이다. 천국 대문에는 십자가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데 평소에 십자가를 피하기만 하고 싫어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갑자기 십자가가 좋아질리가 있겠느냐고. 그 사람은 역시 평소에 끌리던 쪽으로, 십자가의 반대편으로 기울어진다는 이야기다.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곧 천국을 싫어한다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는 길이니, 십자가의 매력을 빨리 찾아 익히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에 정진하도록 하자.

*참고 자료: 죽음(책) 삶의 저 너머(VHS 25분)



교구 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12월20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구세주.

1. 이병호 주교님. 미사 일정: 성탄 전야미사 - 12월24일(금) 밤11시30분 중앙 성당, 성탄 낮미사-12월25일(토)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2. 우리 농업과 민족을 위한 미사 및 강연회: 12월20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주례-정의구현사제단 공동 집전.
3. 천호 피정 안내: 12월23일-25일, 주례-성탄 대피정, 강사-박종근 신부, 문의 73-6600.
4. 수화 미사: 12월19일(일) 오후5시 가톨릭센터 별관.
5. 하나회 월례모임: 12월26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별관.
6.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2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주례-이병호 주교.

※ 축! 영명: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박대덕, 정삼권 신부님.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12월26일 오후1시30분 본원(0652)84-3231.
- 가리따스수녀회: 12월26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0653)54-2636.
- 울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녀회: 12월26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0652)78-0094.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대기 오염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매연입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나 걷도록 해서 우리의 건강과 자연을 지킵시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문구, X-마스추리 전구 도매센터 남문노트사

원수관(야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축! 개업

키친아트 전주특약점

혼수, 주방용품, 도자기 공장도자 판매, 각종 선물 답례품 상담
변희철(요아킴) · 한미영(글라라)

효자동 신광불림장 앞
☎ 224-8489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때: 12월 26일 오후 2시-5시
- 곳: 삼랑진 본원 (0527) 52-4241
- 준비물: 성서(신구약 합본)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 자매회 성소자 겨울피정

- 때: 94.1.8 후2시-1.10 후2시
- 곳: 가평 꽃동네
- 대상: 중학생 이상의 미혼 남녀
- 준비물: 미사도구, 성서, 세면도구
- 문의: (0446) 78-9810~2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대림 제4주일
● 축! 세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판공 일정: 20일-남노, 중노1구역, 21일-중노2,3구역, 아중리, 22일-중노4, 인후1구역, 23일-인후2, 기타구역 후 3시~6시 미사 전후, 2. 미사 시간 안내: 24일-저녁 7시, 자정 11시30분, 25일-전 10시, 후 4시, 저녁 7시, 3. 형제회 주최 경노잔치: 25일 장엄미사 후, 지하 교리실(만65세 이상 노인) 4. 초·중고 성탄 예술제: 24일 초등부-후 4시~6시, 중·고등부-후 6시~8시30, 5. L.M 연차 총 친목회: 26일 지하 교리실, 6. 모임: 여성 연합회(21일 어머니미사 후) 7. 사랑의 성금: 29만, 누계-56만, 8. 금주 청소: 중노11,12반, 차주 청소: 기린봉1, 2반.

□ 지난주 봉헌금: 918,810원 □ 교무금: 2,329,000원
□ 2차 헌금: 439,430원

*** 복사**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축! 영세식: 오늘 공식미사에 있습니다.
1. 예수 성탄 미사 안내: ①성탄 자정미사-24일 밤 11시30분 ②성탄미사-25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2. 성탄 예술제 및 복권 행사: 오후 6시~11시, 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7일(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식 및 축하헌-26일 공식미사 후, 4. 불우이웃돕기: 성금누계 600,000원
5. 자모회 임원 개편: 회장(조옥례·세노비아) 부회장(안정숙·사비나) 총무(유경순·세실리아) 서기(홍순애·글로리아)
6. 회합: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5일 오전 10시)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유달수 부부, 봉헌-이병현 가족, 성탄 자정미사: 해설-오교성, 황만금,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신일관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5,820원 □ 교무금: 3,937,3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축! 성탄: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1. 모임: ①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울드레아-25일(성탄절)저녁, 2. 성탄절 행사: 24일(금) ①초,중,고생 발표회-저녁 7시 ②구유 축성 예식-저녁 10시30분 ③밤미사-저녁 7시 25일(토) ①성탄 대축일 미사-10시 ②천교의 시간-11시, 3. 영세식: 25일 10시, 김중교리-20일-24일 매일 10시30분, 4. L.M 교육 및 연차 총 친목회: 오늘, 점심 제공, 5. 레지오 마리에 가입하여 기도와 전교에 힘쓰시다, 6. 본당 빌전을 위한 2차 헌금: 다음 주일, 7. 차주 전례: 해설-이준봉,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래, 봉헌-김종석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82,880(146,260) □ 봉헌금: 33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대림 제4주일!
● 축! 환영: 새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성모회: 12월19일(오늘) 공식미사 후,
2. 미사 시간 안내: 성탄 전야 미사-12월24일(금) 저녁 10시, 성탄 대축일 미사-12월25일(토) 오전 10시30분, 오후 4시,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1,007,150원 □ 교무금: 2,49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대림 제4주일
●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영세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방학 동안 없음(가족 미사에 참여)
2. 12월23일 초등부 성탄 예술제: 오후 5시, 미사-오전 10시,
3. 성탄 예술제: 12월24일 저녁 7시30분~10시30분, · 성탄 자정미사-밤 10시30분, · 성탄 대축일 낮미사-12월25일 오전 10시,
4. 다음주: 요셉회, 사사회,
5. 청소년사: 2구역 전부.

□ 지난주 봉헌금: 748,300원 □ 교무금: 1,228,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대림 제4주일입니다.
1. 금주: ①혼인 강좌(전 9:30 센터) ②바비의 성모 꾸리아(후시) ③영년 연합회(후 8시) 2. 성모회: 20일(월) 후 6시, 3. 성모회: 21일(화) 오전 11시, 4. 본당 대청소: 21일(화) 오후 3시, 5. 영세식: 23일 오후 7시, 면담: 21일 오전 저녁미사 후
6. 성탄 전야미사: 24일 저녁 11시, 25일 대축일미사: 오전 10시, 10:30분(입복만, 바로로신부님 집전), 오후 3시, 7시, 7. 초·중·고 성탄 예술제: 24일 오후 7시30분, 8. 차주: 성마리아 3미사(후 2시) 9. 매일 미사책, 잡지 등 헌책 모읍니다(휴게실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1,771,5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삼근

- 경 예수 성탄 대축일 축기점마다 성탄의 축복을 빕니다.
● 성탄 미사 및 행사 안내: 새례식-23일 저녁 8시, 성탄 밤미사-24일 밤 10시, 성탄 대축일 낮미사-9시, 10시30분, 후 3시, 저녁 7시30분, 성탄 예술제(초,중,고) 구역별 성가-25일 7시,
1. 병자 봉성제: 21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2. 모총 판공성사: 22일 어머니, 아버지미사 전후 누락자 모두,
3. 합동 혼배행사: 26일 10시30분 21일-단순 조당차 면접,
4.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20일 전 10시30분 주교님 미사 집전,
5. 회의: 성소무원회-22일, 6. 한빛회 1주기 정기총회: 23일,
7. 축! 결혼: 신랑-백장기, 신부-이민숙, 26일 목원 후 1시,
8. 탈삼미사: 23일 전 11시, 동쪽골 안락방 연영 장요셉, 26일 후 4시 정경식(베네딕도) 부친 연영 정무까, 주공205동1113호,
9. 울드레아 임원 개편: 간사-김병선, 부간사-김혜자, 총무-최현근, 회계-한혜영.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설우
사목회장 한병갑

- 대림 4주간 특강: 유화하는 공동체
특강해 주신 유영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탄 안내: 24일 오전 10시-영세식(첫 영성제자) 예술제-오후 7시, 복권 추첨-오후 8시30분, 미사-오후 11시, 나눔잔치-미사 후, 25일(토) 오전 10시-미사(첫 영성제식)
3. 총회, 구역장 릴레이, 레지오 연총 친목회: 다음 주일,
4. 성탄 복권 경품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금주 청소: 평화, 차주 청소: 동남삼정, 6. 금주 전례: 김희숙, 손금주, 독서·봉헌: 이영일, 황윤주, 차주 전례: 김경숙, 정준성, 독서·봉헌: 송민숙, 이광석,
□ 지난주 봉헌금: 565,900원 □ 교무금: 1,174,000원

*** 효자동** 본당사무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삼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섭

-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1. 축! 영세식: 19일(일) 오후 3시, 2. 자모회: 21일(화) 오전 11시(정기총회), 3. 합동 판공성사: 22일(수) 저녁미사 후-10시 까지, 4. 성탄 행사: 25일 미사 안내는 사목회, 제1부 전야 행사-24일 오후 7시-9시(학생회 1일 찾점과 사회전이 있습니다) 제2부 전야 미사-24일 밤 10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5일 미사 시간: 9시30분, 11시, 오후 2시(어린이), 오후 7시(새벽 미사 없음) 5. 오후 2시 미사 후 어린이 성탄 예술제와 은총시장이 있습니다, 6. 축! 영명: 스테파노 본당신부님(26일-일), 공식미사 후 영명축하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안내: 금주-성마리아, 애락의 모후, 차주-파티마의 모후, 티없으신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52,440원 □ 교무금: 7,123,5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대림절 특별 강론: 오늘 공식미사중 강사 범석규 신부님,
2. 영세식: 22일(수) 저녁 7시, 3. 구역(반)성가경연 대회: 24일(금) 저녁,
4. 성탄 밤미사: 24일(금) 밤 11시30분(구유 축성 및 경배) 미사 후 나눔의 잔치 있습니다, 5. 성탄 낮미사: 오전 9시, 10시30분, 저녁 7시,
6. 성탄 예술제: 24일 2시-초등부, 7시-중·고등부(106호)
차주 모임: 사목회, 요셉회, 금주 전례: 해설-이건태, 독서①방세연 ②박영희, 봉헌 안내-전영섭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연숙, 독서①이재규 ②김지영, 봉헌 안내-김용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71,010원 □ 교무금: 5,588,000원
□ 2차헌금: 782,860원